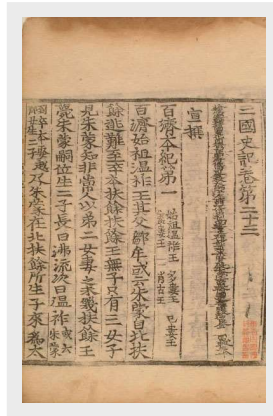


백제 건국[百濟 建國] 마한 땅에 부여의 후손이 나라를 세 우다

기원전 18년



삼국사기(온조 1년조)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백제는 부여에서 고구려를 거쳐 남하한 이주민 집단과 일찍부터 한강 하류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마한(馬韓)의 소국(小國) 백제(百濟)가 결합하여 지금의 서울을 도읍으로 하여 세운 국가이다. 백제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이 남아있다.

2 백제의 다양한 건국 설화와 부여(夫餘)

건국 설화는 신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기반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통해 당시의 실제 모습을 일부나마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백제의 건국 설화는 고구려나 신라와는 다르게 신화적인 요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이야기 전체가 사실처럼 느껴진다.

『삼국사기(三國史記)』백제본기에는 백제의 건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 시조왕 주몽(朱蒙)이 아들 유리(琉璃)를 후계자로 삼자, 유리의 배다른 동생인 온조(溫祚)와 비류(沸流)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끌고 남하하여 한반도 중서부에 자리를 잡았다. 먼저 형인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지금의 인천시)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고, 동생 온조는 위례성(慰禮城: 지금의 서울시)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다. 온조는 이때 자신을 따라 내려온 신하 열 명이 건국을 도왔다 하여 나라의 이름을 '십제(十濟)'라고 하였다가, 이후 비류가 죽고 그의 신하들을 거두면서 '백제(百濟)'로 고쳤다고 한다. [관련자료](#)

그런데 백제의 건국 설화는 고구려나 신라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설화가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정리되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요소를 담은 여러 설들이 함께 남아있는 점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 할주(割註: 본문 밑에 두 줄로 잘게 단 주)에는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가 북부여왕 해부루(解夫婁)의 후손 우태(優台)라고 하고, 주몽은 의붓아버지라고 되어 있으며, 온조가 아닌 비류가 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정사(正史)인 『북사(北史)』나 『수서(隋書)』에는 부여왕(夫餘王) 동명(東明)의 후손 구태(仇台)를 백제의 건국 시조로 기